

기름사재기와 에너지절약

洪顯鍾

〈湖南精油 수급조정과장〉

흔히 남의 나라 전쟁만큼 더 신나는 구경은 없다고 들 하지만 기름 한방울 안나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는 처지다.

원유도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름소비억 제시책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원유값은 폭등하지 않을 지, 또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비상 사태다.

더욱이 요즘은 단기중전가능성은 사라지고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기름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극심한 기름 사재기현상도 이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식으로 기름을 좀더 많이 갖겠다고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로 몰려든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는가. 주유소에 아무리 기름이 넘쳐 흘러도 남아날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틈을 타서 일부에선 껌싸게 기름값이 오르면 이득을 보겠다고 기름출고를 꺼린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들린다.

여기엔 정부책임도 없지 않다. 전쟁발발로 가뜩이나 석유수급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판에 정부가 기름값 인상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으니 주유소기름이 동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그나마 전쟁발발에도 불구하고 원유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국내원유도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한때 30, 40%씩 급증하던 난방유류 수요가 이제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유사 사무실에 하루 수십통씩 빗발치던 소비자들이 항의전화도 요즘은 푹 끊겼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앞으로 기름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 이제 냉정히 우리 처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쓰는 종이 한장, 연필 한자루, 신발; 옷 등 어떤 물건이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없다. 흔히 에너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수도물도 원가의 40%이상이 에너지비용이라고 한다.

사재기현상도 결국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에너지를 절약하는 의식이 생활화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희생하는 정신, 생활 주변의 작은데서 에너지를 아껴쓰는 정신,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작은 정신의 실천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동아일보(2.1)에서〉

□ 도서안내 □

석유의 이모저모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